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先)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윤 관 기*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先)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A, B교육대학교 9개학과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은 남학생(63.5%)보다 여학생(75.1%)이 음악 선경험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음악 선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29.4%)때 시작하였으며, 기간은 4-6년(29.4%), 그리고 초등예비교사들은 피아노학원(61.9%)을 통해 음악 선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다. 둘째, 음악 선경험의 영향은 대체로 음악선호도, 악기연주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현장 음악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46명(77.3%)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셋째, 독립 t검증 결과 통계량의 t값은 3.08, 유의확률은 .002로 $p < .05$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음악 선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가 .360이고 $p < 0.1$ 이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음악 선(先)경험1),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선호도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선경험	2. 음악 선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3. 음악교과 역량	4.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IV. 연구결과	
1. 음악 선경험	
2. 음악 선경험의 영향	
3.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4.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1) 음악 선(先)경험은 초등예비교사들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공교육 형태의 음악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기교육 및 사교육, 그리고 음악활동을 일컫는 것을 말한다.

I. 서론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생 역량강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교육적 관심에 맞춰 우리나라는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송주현, 2015).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a),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을 세계적인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6가지 역량(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음악교과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기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b).

특히나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음악수업에서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역량에 따라 학생들의 음악교육의 질과 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누가 음악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르쳐지는지에 관한 정보로도 연결되며 학생들의 음악학습 역량 향상은 물론 음악성취도 평가와도 귀결되고 있다(이홍수 외, 1992).

흔히 교육 환경이 변화되고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끝 선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진성희, 2010). 오늘날 교사들은 교과교육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수행, 학생과의 관계 및 학부모와의 관계형성, 동료교사와 관계형성은 물론 자기계발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사람으로서 그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백순근, 임현수, 2004).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주 업무인 교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량은 교사의 전문적인 교과지도능력이라 할 것이다(진성희, 2010). 그러나 교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수업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선진화(스마트 기기의 발전, 교육용 웹 프로그램의 발달과 보급)는 교사들을 더욱 수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음악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교육용 웹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의존의 정도는 음악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타 교과 예비교사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클릭교사²⁾’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윤관기, 2015a).

2) ‘클릭교사(click teacher)’는 ‘분필교사(chalk teacher)’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어진 영상교재만 수동적으로 클릭하는 교사를 일컬으며, 음악교과에서는 교사가 전통적인 교수 방법 대신에 특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음악교과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과교육학지식의 이해, 음악활동을 이끌 수 있는 교수능력과 실기지도능력(피아노·국악기 반주, 가창, 악기 연주, 창의적 표현, 합창 지도, 지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오지향, 2012; Hoffer, 2001). 이처럼 음악교과는 타 교과보다 교사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예비교사들은 예체능교과 중에서 음악교과를 제일 지도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초등예비교사들은 그것을 음악 실기능력 또는 선(先)경험³⁾의 부족으로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 또한 음악을 선경험한 학과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며 음악과목 지도능력의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예비교사들의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윤관기, 2015b).

초등예비교사들은 학생들 대다수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로 교사양성기관에 입학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음악실기와 음악지도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 융합을 위한 음악전문 지식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예비교사 자신의 부족한 음악적 능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음악과목에 낮은 신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선경험

공교육(public education)의 정의는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으로써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만을 의미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육도 포함된다.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과 대비되는 뜻으로 쓰이며(두산백과사전), 사교육은 공교육 체제로서의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밖에서 교습비를 지불하고 행해지는 교습으로 보며, 또 다른 형태로는 개인, 그룹, 학습지와 통신수단,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컫는다(김홍주, 2000).

교사를 말한다(출처: <http://www.sisainlive.com>).

3) 이하 음악 선(先)경험은 ‘음악 선경험’으로 제시하였다.

음악 선경험의 정의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공교육과 대비되며 음악 사교육(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공교육과는 대비되거나 혹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경험으로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의 사적으로 받는 교육) 또는 조기교육(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지적 자극을 위한 과도한 학습)으로 종종 정의되고 있다(박은정, 고정원, 2014;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이종재, 이희숙, 2008; 장운옥, 2013). 무엇보다 음악은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다른 분야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감각 중에서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음악은 청음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이므로 음악교육은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음악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송주승 외 2004, 방금주, 1994).

또한 인간의 음악적성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9세까지의 음악적성은 유동적이지만 그 이후로는 평생 고정된 음악적성을 지니게 되므로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의 음악적 능력은 유아기에 급속히 발달하므로 아동의 음악성 향상과 유아기의 음악교육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Gordon, 1987; 송주승 외 2004). 또한 음악교육학자 코다이(Zoltán Kodály)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3~7세 사이에 음악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에 음악교육이 그 이후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든(Edwin Gordon)은 아동에게 음악분야에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태어나서 3살까지, 그리고 3살에서 5살까지의 경험으로 일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방금주, 1994; 임미경 외, 2010).

많은 학자들마다 중요한 아동의 특정 연령의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연령인 9세에서 10세까지의 음악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과정이 음악적 소질 계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방금주, 1994), 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과 그 경험의 질에 따른 청소년기의 음악 지능과 정서지능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주연, 2015). 또한 아동의 음악성은 만3세에 발달을 시작으로 만8세에는 최고조에 이르며, 미국 심리학자 블룸(Bloom)에 의하면 8세까지 전체 지능의 80%가 발달하고, 헤커 폰 지헨(Haecker von Ziehen)의 연구에 의하면 8세 이전에 음악적 지능이 약 80%가 발달한다고 하였다(전경원, 2000; Haecker von Ziehen, 1922. 정유하, 재인용 p. 4). 이후 아동이 개개인이 각자가 처한 음악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환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음악적 재능의 발달은 3가지요소(소질, 환경, 노력)에 의한 혼합되어 작용하는 것이다(변정자, 1997; 전현성, 1997).

아동의 조기교육에서 음악교육은 개인이 지닌 음악적 잠재능력(소질)을 최대한으로 발달시켜주며 이때 교사는 아동이 지닌 여러 가지 음악적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음악적 능력은 어떠한 음악교육의 형태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그들의 음악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사회성 신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제공된 음악경험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송주승 외, 2004).

또한 지속적인 유아기 음악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보다 풍부한 음악적 소양을 지니게 되며 특정한 예술적 경험은 물론 단순한 예술적 노출로도 유아에게 미치는 예술성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 바람직한 음악환경의 제공은 음악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아기 조기예술 교육 경험은 음악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신주현, 김희연, 2004). 그리고 가드너(Gardner)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8가지 지능 가운데 뇌에 내재된 고유 지능인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음악적 지능은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으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음악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음악적 지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때 환경적 조건이 음악적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권덕원 외, 2014; 민경훈 외, 2013).

음악 사교육은 선택적 행위로서 나름의 특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실천력, 그리고 남과 다른 차별성을 기르기 위한 전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이종각, 1998). 음악교과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각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이 문화적 역량, 계층적 지위를 의미하므로 그 음악적 상징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Bourdieu & Passeron, 1979). 음악 사교육은 자녀들의 음악적 재능과 소질, 적성을 개발해 주며 학생들이 음악 사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교과를 학습하기보다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성 발달은 물론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심어줌으로써 음악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유혜경, 1988).

음악적 선경험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악 체험의 질의 차이에 따라 다르며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경험의 지속성에 따라 음악적 능력은 발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기에 형성되지 않은 음악성은 이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극복해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이홍수 외, 1990; 오누리, 2009).

2. 음악 선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음악 선경험에 대한 연구로는 조기음악교육,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및 특기적성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주연(2015)은 청소년의 조기음악교육 경험의 기간과 질에 따른 음악지능과 정서지능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조기음악교육의 경험이 긴 집단이 음악지능, 정서인식, 정서활용, 감정이입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음악 특기 적성교육과 음악선호도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특기적성 교육을 더 수강하였으며 남학생들의 만족도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음악 특기 적성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음악관련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악특기 적성교육은 음악적성과 서로 상관관계가 높고 음악적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인경, 2006; 장근주, 2006). 허정화(2010)의 기악교육과 음악인지 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을 연구결과는 교육 시작 연령보다 교육 기간이 길어질 때 음악적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보여 지며,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악적성이 높다고 하였다. 문선미(2008)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사교육이 음악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체적으로 음악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다른 주지교과의 학업 성적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으며, 음악 사교육을 이른 시기에 시작할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음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시기의 음악적 환경은 음악성 발달 및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음악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음악을 경험하고 훈련하면서 후천적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동의 음악성과 음악적 능력은 음악을 다루는 개인의 성장과 그 발달 시기에 알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제공될 때 최대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3. 음악교사 역량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하며 그 삶을 영위해 가는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능력이 요구되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다(김연진, 황윤세, 2014). 이러한 역량 분야에서 화이트(White, 1959)는 그 개념을 학문적으로 도입한 연구자로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p. 236)'이라고 정의하였으며(윤정일 외, 2007), 브리지스(Bridges, 1996)와 스투어트(Stewart, 1999)는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시 되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언진, 황윤세, 2014).

급속한 교육환경 및 교육의 역할과 내용의 변화, 그리고 교육 수요의 다원화는 교사들의 전통적 직무성격을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권혁운, 2011). 최근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역량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량은 교육주체자로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필요한 능력이며 교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으로써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Teven & Hanson, 2004).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과의 역량을 6가지 역량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교과의 핵심역량은 음악적 감수성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성찰의 과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며,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 및 활용, 그리고 재구성하여 성찰과 상상력으로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하는 능력이며, 음악적 소통역량은 학습자 내면의 소리 및 타인의 음악적 상징이나 행위를 수용하는 역량으로 음악적 소통은 음악현상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생성된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공동체의 문제는 물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음악 정보처리 역량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정보,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분류, 그리고 평가와 조작으로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역량이다. 자기관리역량은 스스로 음악적 자아를 발견하여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 나감을 뜻한다(이영미, 2016, 재인용).

음악교과는 수행중심교과로서 단기간에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기보다 장기간 해당과목이 요구하는 이론적 지식, 실기, 교수법등을 통합적으로 습득해야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4년 동안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습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보니 수행중심 교과의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교육법 시행령 '제 33조 제2항'의 내용으로 음악교과 이외에도 타 교과도 전담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보직을 맡은 교사들의 업무 경감용으로 악용(惡用)되기도 한다(김도기, 2007; 임미경 외, 2003).

음악수업의 질은 음악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좌우되고 그 전문성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향배가 될 것이다(진성희, 나일주, 2009). 음악교사의 교수역량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교수역량, 교수행동, 교육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라 할 수 있는 교사의 내적 특성을 의미한다(Spencer & Spencer, 1993).

음악교과 역량에 대한 논의와 방안들은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그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음악교육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개발방향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소경희 외, 2014; 송주현, 2015; 정진원 외, 2013). 이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새로이 도입된 만큼 음악교과의 고유성을 살리며 앞으로 음악교과를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교수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으며(김황기, 2008, Bandura, 1977), 교육학 분야에서는 이를 개념화하여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에 교사가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교사 능력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을 의미한다(Ashton, 1985, 최미영, 2012, 재인용, p. 340). 따라서 수업하는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때 교사의 행동이나 말투, 그리고 표정들은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릭스와 에녹스(Riggs & Enochs, 1990)는 교수 상황에서 신념, 태도, 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내용에서 자신의 능력이 과목지도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신념), 과목지도를 싫어하는 느낌으로 성장되며(태도),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결국 과목지도를 피하게 된다(행동)고 하였다(최미영, 2014 재인용). 교사의 자신감의 결여는 수업의 실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음악수업에서도 교사의 부정적인 태도는 현장에서 음악교육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며 학생들의 음악활동에도 무의식적인 전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현직 교사의 교사 효능감의 단점은 현직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음악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교수 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한다(김은심, 2005; 백지혜, 2010).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효능감과 관련한 음악교과 자기효능감(Music Subject Self-Efficacy)은 음악과목을 지도함에 있어 초등예비교사로서 교과 수행 능력과 미래의 음악교과를 지도하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믿음이다(윤관기, 2015b).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A교육대학교 3학년 4개학과(국어교육, 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학생들과 B교육대학교 2학년 5개학과(컴퓨터교육, 실과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불성실답변과 중복답변을 제외한 231명(93.9%)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은 학 학기동안 음악교과교육학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모둠별로 40분 동안 음악활동영역(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음악만들기, 감상하기)을 선택하여 수업시연을 진행하였다. 음악수업시연을 통해 예비음악교사로서 갖춰야 할 수업실기능력은 물론 수업지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시연을 마친 후에는 녹화된 비디오 영상으로 자기피드백 작성, 그리고 동료평가를 위한 수업참관록 작성,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시연 전반에 대한 교수자로부터 평가도 제공받았다.

<표 1> 연구대상

학과		국어	윤리	사회	수학	컴퓨터	실과	음악	체육	미술	전체
성별	남	9	5	13	3	9	7	5	13	10	74
	여	16	20	13	24	18	19	22	10	15	157
인원		25	25	26	27	27	26	27	23	25	231

2. 연구도구

1) 음악 선경험

이번 연구를 위하여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음악 선경험은 송주승, 이영백(2002)과 문선미(2008)의 음악 조기교육과 사교

육 형태의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총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7개 문항 중에서 6개의 문항은 자유응답식이며, 나머지 한 문항은 음악 선경험의 영향에 대한 하위 10개 문항으로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인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 2>는 음악 선경험의 배경변인으로서 선경험의 유무, 시기, 기간, 중단이유, 형태, 악기 유형이며, 그리고 음악 선경험의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91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음악 선경험의 신뢰도

항목	번호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음악 선경험의 배경변인	1, 2, 3, 4, 5, 6	6	.	.	.
음악 선경험의 영향	1, 2, 3, 4, 5, 6, 7, 8, 9, 10	10	3.66	7.12	.891

2)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릭스와 에녹스(Riggs & Enochs, 1990)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 조사지(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의 척도를 임성민(2011)이 수정·보완한 것을 음악교과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4개 하위요소(학습효능감, 교수효능감, 성과기대감, 학습효능감)를 가지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자의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부정형 문항을 작성하였고,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3>는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로서 전체 신뢰도는 .813이다.

<표 3>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구성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학습효능감	1,4,6*,12,17*,18,20*,23	8	26.255	4.685	.741
교수효능감	2*,3,9*,10*,11*,13,15,16*	8	25.671	4.079	.668
성과기대감	5,7,8,14,19*,21*,22,24	8	25.991	4.325	.719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24	79.597	9.425	.813

(*: 역채점 문항)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경험에 대한 배경변인(기술통계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음악 선경험의 유무 집단 간의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마지막으로 등간척도로 측정된 음악 선경험의 영향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Simple 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1. 음악 선경험

초등예비교사들 중에서 189명(81.8%)이 음악 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타 교과 학생들의 선경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여학생 모두 음악 선경험이 있다고 응답). 전체적으로는 여학생(75.1%)이 남학생(63.5%)들 보다 음악 선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표 4>는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선경험의 유무를 학과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표 4> 학과별 음악 선경험의 유무

학과	선경험의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남	여	남	여	
국어교육과	7(28)	12(48)	2(8)	4(16)	25(100)
윤리교육과	2(8)	20(80)	3(12)	.	25(100)
사회교육과	8(30.8)	12(46.2)	5(19.2)	1(3.8)	26(100)
수학교육과	2(7.4)	23(85.2)	1(3.7)	1(3.7)	27(100)
컴퓨터교육과	6(22.2)	15(55.6)	3(11.1)	3(11.1)	27(100)
실과교육과	5(19.2)	16(61.6)	2(7.7)	3(11.5)	26(100)
음악교육과	5(18.5)	22(81.5)	.	.	27(100)

학과	선경험의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남	여	남	여	
체육교육과	7(30.4)	10(43.5)	6(26.1)	·	23(100)
미술교육과	5(20)	12(48)	5(20)	3(12)	25(100)
전체	47(20.3)	142(61.5)	27(11.7)	15(6.5)	231(100)

초등예비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29.4%)때 음악 선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간은 4-6년(29.4%)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를 상실(35.9%)로 인해 음악 선경험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부시간 부족(23.4%) 또한 선경험을 중단하게 된 사유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다음 <표 5>은 음악 선경험 시기, 기간, 중단사유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5> 음악 선경험 시기, 기간, 중단 사유

시기	빈도		기간	빈도		중단사유	빈도	
	N	%		N	%		N	%
유치원	42	22.2	1년 미만	10	5.3	경제적 사정	13	6.9
초등저학년	91	48.2	1-3년	60	31.8	부모님 권유	27	14.3
초등고학년	30	15.9	4-6년	68	35.9	공부시간 부족	54	28.5
중학교	21	11.1	7-9년	42	22.2	흥미상실	83	43.9
고등학교	5	2.6	10년 이상	9	4.8	주요교과 수강	12	6.4
전체	189	100	전체	189	100	전체	189	100

* 42명(18.2%)은 음악 선경험이 없음.

피아노학원(61.9%)을 통해 초등예비교사들이 가장 많은 음악 선경험을 하였으며, 개인레슨(14.3%)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했던 악기는 복수응답으로서 피아노(57.1%)가 제일 많았는데, 이러한 응답은 피아노학원에서 음악 선경험을 가장 많이 했다는 응답과 상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표 6>은 음악 선경험의 형태이고, <표 7>은 음악 선경험을 했던 악기유형에 대한 것이다.

<표 6> 음악 선경험의 형태

형태	빈도	
	N	퍼센트(%)
방과 후 학교	5	2.2
피아노학원	143	61.9
개인레슨	33	14.3
문화센터	3	1.3

형태	빈도	
	N	퍼센트(%)
그룹레슨	·	·
밴드부	1	0.4
합창단	2	0.9
오케스트라	1	0.4
기타(국악)	1	0.4
전체	189	81.8

* 42명(18.2%)은 음악 선경험이 없음.

<표 7> 음악 선경험 악기유형

악기유형	빈도	
	N	퍼센트(%)
리코더	18	5.2
타악기	18	5.2
관악기	27	7.8
현악기	51	14.9
피아노	197	57.1
국악기	25	7.2
기타(Guitar)	5	1.4
하모니카	2	0.6
유클렐레	2	0.6
전체	345	100

2. 음악 선경험의 영향

음악교과지도에 대한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높게 타났지만, 결국 교사는 음악활동영역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음악지도에 대한 교사의 기능적인 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음악실기 능력은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초등예비교사들은 결국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윤관기, 2015b).

다음 <표 8>은 음악 선경험의 영향에 대한 하위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음악 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예비교사들은 음악 선경험이 음악성적(64.0%), 음악선호도 향상(70.4%), 악기연주실력 향상(69.8%), 음악이론 개념 형성(63.0%), 음악수업실연에서 영향(68.4%), 그리고 현장음악교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인 146명(77.3%)이다.

<표 8> 음악 선경험의 영향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음악선경험으로 음악 성적이 향상되었다.	.	27 (14.3)	41 (21.7)	83 (43.9)	38 (20.1)	3.69	.94
음악선경험은 다른 과목 학업성취도에 도움 되었다.	2 (1.1)	44 (23.3)	72 (38.1)	56 (29.6)	15 (7.9)	3.20	.92
음악선경험은 음악수업을 즐겁게 해 주었다.	4 (2.1)	17 (9.0)	35 (18.5)	84 (44.5)	49 (25.9)	3.83	.98
음악선경험으로 악기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2 (1.1)	21 (11.1)	34 (18.0)	86 (45.5)	46 (24.3)	3.80	.96
음악선경험으로 음악이론 개념을 잘 알게 되었다.	4 (2.1)	23 (12.2)	43 (22.7)	78 (41.3)	41 (21.7)	3.68	1.01
음악선경험으로 음악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3 (1.6)	26 (13.8)	30 (15.8)	86 (45.5)	44 (23.3)	3.75	1.01
음악선경험은 음악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었다.	5 (2.6)	24 (12.7)	50 (26.5)	63 (33.3)	47 (24.9)	3.65	1.06
음악선경험은 교대 음악실기수업에서 타 학생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18 (9.5)	28 (14.8)	38 (20.1)	55 (29.1)	50 (26.5)	3.48	1.28
음악선경험은 교대 음악수업실연에서 타 학생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5 (2.6)	21 (11.1)	34 (17.9)	90 (47.7)	39 (20.7)	3.72	.99
음악선경험은 현장교사로서 음악지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0.5)	5 (2.6)	37 (19.6)	104 (55.0)	42 (22.3)	3.95	.75

3.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 선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78.02,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73.61이며, 표준편차는 각 8.06과 9.63으로 나타났다. 등분산 검정 결과 F값은 .526이고 유의확률은 .469($p>.05$)이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검증 통계량의 t값은 3.08이며, 유의확률은 .002로 $p<.05$ 이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음악 선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 <표 9>는 음악 선경험의 유무에 따른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의 독립표본 검정과 차이에 따른 비교분석표이다.

<표 9> 음악 선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차이

	음악 선경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있다	189	78.02	8.06	3.08
	없다	42	73.61	9.63	

$p^* < 0.5$

4.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음악 선경험 영향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가 .360이고 $p < 0.1$ 이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0.3~+0.7사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우 외, 2008).

<표 10> 음악 선경험 영향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음악 선경험 영향		189	36.66	7.12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231	77.22	8.51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음악 선경험 영향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Pearson 상관	1		.360**
	유의확률(양측)			.000
	제곱합 및 교차곱	16692.294		2805.667
	공분산	72.575		14.924
	N	231		189
음악 선경험 영향	Pearson 상관	.360**		1
	유의확률 (양측)	.000		
	제곱합 및 교차곱	2805.667		95552.000
	공분산	14.924		50.809
	N	189		189
		음악 선경험 영향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360**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A교육대학교 2학년 5개학과(컴퓨터교육, 실과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와 B교육대학교 3학년 4개학과(국어교육, 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학생들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은 남학생(63.5%)보다 여학생(75.1%)이 음악 선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학과 학생들보다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남·여학생 모두 음악 선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음악교육과의 특성상 음악 실기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과라는 인식이 초등예비교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음악 선경험의 유무(음악교육과 96.3%의 학생들이 4년 이상의 음악 선경험이 있음)가 학과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경험 시기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29.4%)때 주로 시작하였으며, 기간은 4년-6년(29.4%)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음악 선경험을 중단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흥미상실(35.9%)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는 1인1기 형태의 기악 학습으로 인한 결과이며, 공부시간 부족(23.4%)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선경험의 형태로 피아노학원(61.9%)을 가장 많이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기는 피아노(57.1%)와 현악기(14.9%)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둘째, 음악 선경험 영향에 대한 하위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음악성적향상(64.0%), 음악선호도 증가(70.4%), 악기연주실력 향상(69.8%), 음악이론 개념이 형성(63.0%)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초등예비교사로서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수업실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119명(68.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 선경험이 현장음악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은 모두 146명(7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은 음악 선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선택적 답변에서도 30명(71.4%)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음악 선경험이 있다면 수업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은 음악교육과 학생들의 점수(84.7점)가 타 교과 학생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선경험이 있는 집단은 78.02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73.61점으로 측정되었다. 독립 t검증 결과 통계량의 t값은 3.08, 유의확률은 .002로 $p < .05$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음악 선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악 선경험 영향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가 .360이고, $p < 0.1$ 이므로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 상관의 정도는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0.3~+0.7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소 7가지 중에서 교수실행에 해당하는 교수역량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서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한편, 교수자의 수업진행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 및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량과도 연결되고 있다

(진성희, 나일주, 2009). 더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 함양중에서 가장 핵심은 교과를 전문가답게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수활동의 기초는 ‘교수역량’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은 교수이론과 실제적 능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의 음악교과 교수역량 강화 이전에 음악교과에 대한 선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경험의 영향은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초등예비교사들은 70%이상의 학생들이 10세 이전에 음악 선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평생 고정된 음악적성을 지닐 수 있다는 조기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일치하며 어려서 제공된 음악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예비교사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음악교과 자기효능감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교과에 대한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음악 선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높다고 볼 수 없기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음악 선경험의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 학창시기별로 학생들의 응답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아 전체적인 결과를 논의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어 이를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 하자면 첫째, 음악 선경험의 유무는 실제적으로 음악교과를 지도하는 초등예비교사들과의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는 음악교과지도에 자신이 없거나 음악 선경험이 전무한 초등예비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용 웹 프로그램(Educational Web-Based Program)에만 의존하게 되는 클릭교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음악교과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기관에서 초등예비교사들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 선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초등예비교사들이 교사양성기관 재학하는 동안 음악교육과 교수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또는 현장 음악전공 멘토교사들과의 연계과정을 통해 초등예비교사들이 미래의 음악교사로서의 교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대학교 프로그램 개발(동아리 및 교과수업 이후의 활동,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음악실기 레슨 확대)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a).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
- 교육부 (2015b).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14).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혁은 (2011).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초등교육연구**, 24(2), 115-134.
- 김도기 (2007).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토론.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 67-86.
- 김석우 외 (2008).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2.0 활용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언진, 황운세 (2014).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모형 탐색. **열린부모교육연구**, 6(2), 17-36.
- 김은심 (2005).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유아동작교육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동작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3), 31-56.
- 김황기 (2008). 미술적 몰입이 예비 초등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4(0), 49-74.
- 김홍주 (2000). 과외 문제의 심층해부와 대책. 2000년도 제2차 KEDI 교육정책 포럼.
- 문선미 (2008). 음악 사교육이 음악교과 및 타 교과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3·4·5·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훈 외 (2013). **음악교육학총론**. 서울: 학지사.
- 박은정, 고정원 (2014). 사교육 패턴과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443-456.
- 방금주 (1994). 조기 교육을 위한 고든(Edwin Gordon)의 음악학습이론. **음악교육연구**, 13, 1-17.
- 백순근, 임현수 (2004). 교직수행지능에 대한 일고찰. **교육심리 학술세미나 논문집**. 151-177.
- 백지혜 (2010).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불안 정도에 따른 음악적 태도 및 교수 학습능력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5(2), 149-173.
- 변정자 (1997). 음악적 소질, 재능, 음악성 연구. **한국음악학회**, 16.
- 소경희, 송주현, 홍원표, 강지영 (2014). 독일 함부르크 주의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사례 탐색. **음악교육연구**, 43(2), 25-45.

- 송주승, 이영백 (2002).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음악연구**, 28(0), 107-138.
- 송주승, 이영백, 송주병 (2004). 시대별 음악교육의 흐름 및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음악연구**, 33(0), 107-138.
- 송주현 (2015). 학교 음악교육의 음악 교과 역량 연구. **음악교육연구**, 44(4), 117-146.
- 신주현, 김희연 (2004).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저널**, 13(1), 5-21.
- 오누리 (2009). 만 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종합예술과 음악 학회지**, 3(2), 115-134.
- 오지향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효과 분석. **음악교육연구**, 41(1), 191-213.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0), 49-64.
- 유헤경 (1988). 사회계층, 문화와 예술. **예술교육과 창조**, 7, 21-42.
- 윤관기 (2015a).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교육용 웹사이트의 사용실태 및 교사의존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44(3), 137-158.
- 윤관기 (2015b). 동료피드백과 자기평가 활동이 초등예비교사의 음악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연구. **예술교육연구**, 13(1), 37-54.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영미 (2016).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내용 분석. **한국음악교육학회 콜로키움 및 공동학술대회[주제발표1]**, 3-16.
- 이종각 (1998). “한국인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개념화를 위한 작업 중심”.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124, 66-67.
- 이종재, 이희숙 (2008).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 이주연 (2015). 청소년기의 조기음악교육 경험의 기간과 질에 따른 음악지능과 정서지능의 차이. **음악교수법연구**, 16, 133-158.
- 이흥수 (1990).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흥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임미경 (2007).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교의 음악교육 프로

- 그림 개발. **이화음악논집**, 11(2), 231-270.
- 임미경,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과제 2003-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임미경 외 (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임성민 (2011).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예비과학교사들의 자기효능감. **과학교육연구지**, 35(1), 12-22.
- 임인경 (2006). 바이올린 특기, 적성 교육과 음악적성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89.
- 장근주 (2006). 음악 특기, 적성교육 활동과 음악 선호도의 상관관계 연구. **예술교육연구**, 4(2), 19-30.
- 장윤옥 (201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211-231.
- 전경원 (2000).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전현성 (1997). **유아음악교육**. 서울: 태림출판사.
- 정진원, 오지향, 정은경 (2013).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 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시인식 FGI 연구. **예술교육연구**, 11(3), 83-106.
- 정유하 (2003). 음악영재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 **음악연구**, 30(0), 209-239, 4쪽 재인용.
- 진성희 (2010).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성찰 및 강화방안. **한국초등교육**, 20(2), 233-247.
- 진성희, 나일주 (2009). 초등 교수역량요소 도출 및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간 교수역량 인식 비교. **초등교육연구**, 22(1), 343-368.
- 최미영 (2012).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음악교육연구**, 41(2), 339-368.
- 최미영 (2014). 초등음악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교수행동 분석. **음악교육연구**, 43(3), 193-217.
- 허정화 (2010). 기악교육과 음악인지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4(1), 43-60.
- Ashton, P. T. (1985). Motivation and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2. The classroom milieu* (pp. 141-174). Orlando, FL: Academic Pres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ridges, D. (1996). Competenc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 Philosophy of education*, 30(3), 361-376.
- Bourdieu, P., & Passeron, J. C. (1979). *The Inheritors: French students and their relation to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rdon, E. E. (1987).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s of music aptitude*. Chicago: G.I.A. Publications.
- Haecker, von Z. T. (1922). *Zur Verebung und Entwicklung der Musikalischen Begabung*.
- Hoffer, C. R. (2001). *Teaching Music in the Secondary Schools* (5th Ed). Ble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 Riggs, I. M., & Enochs, L. G.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 Spencer, L. M. Jr.,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Inc.
- Stewart, T. A. (1999). *Intellectual Capital*. London: Brealey.
- Teven, J. J., & Hanson, T. L. (2004). The impact of teacher immediacy and perceived teacher caring on teacher competence and trustworth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52, 39-53.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79-333.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s Betwee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Subject Self-Efficacy and Previous Experience about Music Education

Gwan-Ki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pre-service teacher's music subject self-efficacy and previous experience about music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1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emale's score(75.1%) of previous experience music education are more high than male students(63.5%). When they start previous experience about music education, they were low elementary student(29.4%), and duration 4-6years(29.4%), and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ere the most experienced through the piano institution(61.9%).

An independent-samples t-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music subject self-efficacy scores for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for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previous music education($M = 78.02$, $SD = 8.06$) and who do not have experience previous music education, $M = 73.61$, $SD = 9.63$; $t(229) = 3.08$, $p = .02$.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sic subject self-efficacy and previous experience about music education was investigated using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re was a medium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r = .36$, $n = 189$, $p < .0005$.

Key words: early experience of private music education, music subject self-efficacy, music preference.

투고일: 2016년 08월 27일, 심사(수정): 10월 15일(10월 24일), 게재확정일: 10월 31일